

경제관리에서의 증산과 절약

리창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경제관리분야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증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올해 경제관리분야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증산과 절약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객관적요구이며 경제관리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인민대중이 나라의 주인으로, 생산수단의 소유자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온갖 형태의 사회적으로동을 절약하고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의 생산을 보장할수 있는 무제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사회주의경제법칙이 전면적으로 작용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는 모든 생산수단과 로력이 국가의 유일적계획에 따라 분배리용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국가의 통일적지휘에 따라 이루어지는 가장 절약적인 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에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생산의 무정부성과 그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위기, 원료난, 자금난, 판로난, 실업과 같은 사회적으로동의 낭비현상이 근원적으로 없으며 온갖 자원을 가장 절약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우월한 경제적조건들이 마련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재생산의 사회적목적과 근로자들의 리해관계의 일치성으로 하여 증산과 절약이 언제나 사회적성격을 띠고 생산수단과 로력의 합리적조직과 효과적리용이 근로자들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애국심에 의하여 국가적, 전사회적운동으로 실현된다.

증산과 절약의 근본목적과 사회적성격의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간지게 해나가며 있는 자재와 로력, 있는 설비와 자금을 가지고 생산을 보장하고 보다 적은 지출로 더 많이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주인답게 참가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속성으로,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의 높은 애국심의 발현으로 된다.

절약제도를 강화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이 생산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필수적요구이다.

원래 내부예비와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내용으로, 하나의 원칙으로 된다.

생산경영단위들에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생산자대중의 로력적열의를 높이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발전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생산에 대

한 지도와 기술경제적조직사업을 잘하고 관리운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운동에서 타산을 면밀히 하고 로력, 물자, 설비, 자금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따지며 그것을 최대한 절약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면밀한 조직사업이 없이는 계획수행을 원만히 할수 없다.

예비와 가능성은 면밀한 타산과 적극적인 탐구, 세밀한 경제조직사업에 의해서만 현실성으로 전환시킬수 있으며 예비동원을 통하여 생산이 가일층 장성한다.

사회주의경제에서 생산내부예비란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동의 절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예비이며 생산장성의 가능성이다.

모든것이 계획적으로 생산되고 계획적으로 분배리용되는 사회주의경제의 현실적조건에서 생산수단의 불합리한 분배나 계획외 류통에 의하여 사장된 물자, 설비의 동원리용은 계획에 따라 보장된 생산수단과 로력의 보다 합리적이며 절약적인 리용을 통하여 얻게되는 생산장성의 가능성에 비하여 그 규모나 포괄범위상 의의가 상대적으로 적다.

절약제도를 통하여 얻을수 있는 생산장성의 예비와 가능성은 부문과 단위에 관계없이 존재하며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더욱더 커진다. 이것은 이미 기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수단과 로력을 절약하여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 생산잠재력과 가능성을 동원하는 기본고리로, 추가적투자없이 생산을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예비의 근본원천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절약의 예비들은 어떤 형태로 동원되든 다 사회적으로동의 절약으로 되며 그것은 과학적타산과 구체적인 경제조직사업에 의해 실현된다.

주어진 로력의 합리적조직과 능률적리용, 생산설비를 비롯한 생산적고정재산의 합리적배치와 효과적리용, 원료와 자재, 연료, 동력 등 물자재산의 소비기준저하와 같은 절약의 기본요인들은 어느것이나 다 기업관리운영방법이나 생산경영활동조직에 의존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모든 재부를 알뜰히 관리하고 아껴쓰며 보다 적은 로력과 자재, 설비, 자금을 가지고 더 많이, 질높게 생산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 기업관리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된다.

증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올해 경제관리분야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나라살림살이를 깎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우기 위한 요구와 관련된다.

나라와 인민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모든것을 아끼고 절약하면서 나라살림살이를 깎지고 알뜰하게 꾸리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품성이며 사회주의사회에 고유한 생활양식이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깎진 나라살림살이기풍은 사회생활의 보편적기풍으로, 중요한 경제관리원칙의 하나로 된다.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나라살림살이를 깎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절약투쟁이 깎진 나라살림살이기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의 중요성과 관련된다.

절약은 깎진 나라살림살이의 기본내용을 이루며 절약투쟁을 통하여 알뜰하고 깎진 나라살림살이기풍이 서게 된다. 절약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적으로동의 절약이며 사회적으로동의는 각이한 형태의 현물적재산과 재부를 가치적으로 특징짓는다. 따라서 절약은 근로자들의 로동에 의하여 창조된 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알뜰히 관리하며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

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적은 지출로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함으로써 나라살림살이전반을 알뜰히 꾸려나갈수 있게 한다.

간지고 알뜰한 나라살림살이는 절약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는 물론 전사회적범위에서 절약투쟁을 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나라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

증산,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올해 경제관리분야에서 나서는 중요과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조성된 정세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와도 관련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명마루를 향해 폭풍쳐 전진하는 우리의 경제건설은 적들의 악랄한 도전에 직면하고있으며 적들의 경제적고립압살책동은 그 어느때보다도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로운 생산적양양을 일으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룩한 승리를 공고히 하면서 5개년전략수행의 확고한 전망을 열고 나라의 경제전반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자면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 전투목표를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

증산과 절약은 생산적양양의 기본방도이다. 증산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생산적효과를 정량적으로 반영한다면 절약은 지출의 효과성을 특징지으므로 증산의 기본예비로 된다. 그러므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절약투쟁과 결합하여 힘있게 벌리는것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된다.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기업활동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본질적요구이며 증산과 절약의 기본방도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기업체들의 활동은 하나의 경제단위를 이루는 경제기관, 기업체들의 집단적경제활동이며 그것은 해당 단위 근로자들의 개별적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따라서 생산활동에서 생산자대중의 책임과 역할은 기업활동에서 종합적으로 표현되고 집단적으로 발휘되게 된다.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의 기본방도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주인으로서의 기업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반영하기때문이다.

기업체들이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활동을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주동적으로, 경직된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창발적으로 벌려 보다 높은 생산적, 경영적결과가 이룩될 때에는 주인된 책임을 다한다고 할수 있지만 조성된 환경과 조건에 구애되어 창발성이 없이 피동적으로 기업활동을 하여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한다면 자기 책임을 다한다고 볼수 없다. 그러므로 기업체들이 주인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활동으로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는것이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의 기본방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온갖 예비와 잠재력의 최대한 동원은 증산과 절약의 기본담보이다. 예비와 잠재력을 어떻게 탐구하고 동원리용하는가 하는데 생산장성의 중요한 요인이 있고 나라의 경제전

반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올해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기 위한 실천적방도가 있다. 특히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잠재하는 온갖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으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관건적고리로 된다.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기업활동이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되는것은 기업활동과정이 기업체의 현존물질기술적 토대의 현대적갱신과 첨단과학기술도입에 의한 생산물의 비약적인 질제고와 품종확대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주동적이며 창발적인 기업활동과정은 곧 현존물질기술적토대와 잠재력, 온갖 예비를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실천하는 과정이며 생산의 지속적발전을 항구적으로 실현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올해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현실적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철저히 구현할 때 생산의 비약적발전은 확고히 담보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올해계획을 반드시 완수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증산, 절약